

이곳 세계선교 현장인 독일에서(통계: 독일인 중 2% 미만이 공개적으로 성경적 신앙고백 함) 사람을 섬기며 복음전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이 같은 은혜와 감격적인 하나님나라 사역을 위해 이름없이 빛없이 기도와 후원으로 섬겨주신 귀한 분들을 주님 은혜에 의탁합니다.



아마추어 이발사로서의 섬김과 땀나는 사역 이야기: 내가 사역하는 한 난민캠프는 가족이 거처하는 곳으로써 당연히 어린이들이 많다. 어린이들의 이발시에는 대체로 그들 부모들이 동반된다. 요즘 어린이들은 자기 헤어스타일에 아주 민감하고 각자 원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주로 유행하는 스타일을 원한다. 부모들 자신이 그 자녀들의 원하는 헤어스타일을 정해주는 경우도 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이발하는 동안 바로 곁에서 내내 지켜보면서 열정적인 코멘트와 함께 만족하지 않는 부분은 아마추어 이발사인 나에게 날카롭게 지적한다. 키가 작은

어린이들 경우엔 이발사인 나는 무릎을 땅에 꿇고 이발을 해야만한다. 이렇게 몇명의 어린이 이발을 하다보면 부모들의 코치 속에서 마음까지 강하게 긴장되어 얼굴과 온 몸이 땀으로 젖기 일수다. 이처럼 어린이들이 많은 난민캠프의 이발 사역이 가장 힘든 곳이다. 그런데 더 힘든 사실이 또 하나 있다. 서로 먼저 그리고 오늘은 반듯이 이발을 해 달라고 하는 때를 쓰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날은 10 여명의 이발을 하기도 한다.



위의 사진 중 주의에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의 이발 시에 동반된 부모들이다. 그리고 저 한 구석에는 회교권 난민 소녀들이 얼굴에 히잡을 쓰고 이발하는 광경을 바라보고 있다(아랫 사진).



이 모습이 난민캠프의 한 장면이다. 생각이 있는 청소년들은 간혹 이발비용이 얼마냐고 묻는다. 이럴 때면 이발사인 나에게 주어진 메세지 전달의 기회이다. 어느 한 날도 이렇게 묻기에 지체없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을 사랑하면서 무료로 섬긴다"고

했더니 이 대화를 듣고 있던 한 청년이 "그거 참 좋은 태도라"고 말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마음이 찢기고 깊게 상처난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전해지고 경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그들을 섬긴다.



영광된 세례식의 순간들: 지난 6 월 독일인 자매와 터키 자매를 비롯하여 회교국 출신 난민 5 명 포함 모두 7 명의 쾰른의 라인강 세례식 이후 올해 두 번 째로 10 월 첫 주일에 세례를 베풀 수 있었다. 이번은 5 명이였다. 하나님과 저의 교회의 주인되신 예수님께는

한 없이 귀한 영혼들이다. 한 사람은 간증하기를 **"지난 날은 회교국인 모국에서 아랍어로만 정해진 문구되로 기도했었는데 지금은 자신의 모국어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기도하고 찬송 할수 있어 감격적이라"**고 했다. 또 한 사람은 **"세례받는 일로 인하여 자국의 정보원들에게 발각되고 모국으로 강제추방이 된다 할지라도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 살겠노라"**로 다짐 할 때는 나도 함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자신들 각자가 소중하다는 가치관을 새로 깨달고 자신을 이렇게 변화시킨 복음의 비밀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마땅한 도리를 깨달을 때면 그들을 위해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실런지 가슴이 벅차 오른다.

이처럼 목마른 영혼들이며 깊게 상처난 심령을 안고 모국을 떠나 독일에서 난민으로 있는 이들에게 나역시 그 무엇으로도 진정한 기쁨과 소망을 줄 수가 없다. 이런 환경에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성령의 실제적 역사를 경험하는 특권을 나에게도 주신 것 같아 너무 감사하다.



이제 이들이 감상적인 제자로 있지아니하고 바른 성경적 훈련을 받고 튼튼한 제자로 자라야 한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 성경공부와 제자양육을 어려운 공간의 환경에서도 실시하고 있다. 실제 훈련으로써는 각국어로 된 성경과 자료를 준비하여 노방전도도 실시한다(아랫사진).



이번에 새로 시작된 성경공부와 제자양육의 한 구룹 참석자들은 회교도가 다수이다. 그래서 얼굴이 나타나지 않도록 간단한 기념 스케치 사진을 찍었다(옆 사진).



이미 시작된 한 구룹반은 주일예배 전에 성경공부와 제자양육이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지금은 어린이 같은 신앙이지만 장차 영적으로 그리고 지적으로도 튼튼하고 신실한 제자로 성숙하기를 소원하며 기도한다. 그래서 어지러운 세상의 한 부분을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헌신으로 책임지고 맡아주기를 소망한다.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과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보냄받은 자들에게 주신 권능을 감사드리며, 나승필과 국루디아 그리고 아들 나사로 드립니다.

2018.10 월 독일에서